

What do you do when your plans don't work out? Do you blame your circumstances? Do you blame God?

Kenneth Bae had plans to be missionary to North Korea. He knew the difficulties. If he were caught sharing the gospel, he'd be in great danger. Yet North Korea was on his heart. His father was born there, but his family fled to South Korea when he was a child. Years later, Kenneth's father took his family to the USA.

In 2006, Kenneth moved his family to China. China would be a stepping stone into North Korea. He knew that the North Koreans needed hope. They needed to know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Soon, he began arranging trips into North Korea. Strictly speaking these weren't mission trips. Because it's illegal to speak of Christ in North Korea, it would be dangerous for the Christians on his team. Kenneth was to find that out for himself very soon.

On one trip, Kenneth took his computer's external hard drive into North Korea. It contained many files relating to his mission trips there. He'd intended leaving the drive in China. Then, his plans went awry. In North Korea, he was arrested. He was kept under guard in prison or in hospital for about 2 years. During that time the North Koreans called him their most dangerous American prisoner.

Near to his release date, a guard asked him about God. Clearly this man was thinking about the consequences of coming to faith. His final question clearly bothered the guard. "If God is real, why are you still here? You have been here longer than any other prisoner." Kenneth answered that it was God's plan for him to be there. And God's plan included that guard. Furthermore, it included all of the other guards. Then he added, "Without me how would you hear about God and Jesus His Son?" What a good question!

여러분은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않을때 어떻게 합니까? 환경을 비난합니까? 하나님을 비난합니까? 케네스 배는 북한의 선교사가 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움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 전하는 것이 발각된다면 그는 엄청난 곤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의 가슴에 꽂혀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거기서 태어났지만, 그가 어렸을때 그의 가족은 남한으로 도망왔습니다. 몇년후에 그의 아버지는 미국으로 그의 가족을 데리고 갔습니다. 2006년 그는 중국으로 그의 가족과 옮겨갔고, 중국은 북한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는 북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주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 필요가 있었기에, 그는 북한으로 가기 위한 여정을 계획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미션 트립은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팀을 이룬다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그는 얼마되지 않아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 여행중에 그는 북한으로 그의 컴퓨터의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가지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미션 트립과 관련된 많은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에 그것을 놔두고 갈 작정이었는데, 그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는 북한에서 체포되었고 약 2년 동안 감옥과 병원에서 감시하에 지내야 했습니다. 그 기간동안 북한사람들은 그를 가장 위험한 미국인 죄수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출감시기가 다 되갈 무렵, 한 교도관이 그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분명히 믿게 됨에 따라오는 결과에 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질문은 분명히 그 교도관을 거슬리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라면, 왜 당신을 여기에 아직도 있습니까? 당신은 다른 죄수들에 비해 훨씬 오래 여기 있지 않습니까?" 케네스는 그가 그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그 교도관을 포함시켰습니다. 더불어 그는 모든 다른 교도관들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내가 여기 없었다면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에 관하여 들을수 있었겠습니까?"라고 덧붙였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질문이었습니까!

Why was the Apostle Paul in prison? He wouldn't have planned his imprisonment. In fact, he was confident that he'd soon visit Philippi (2:24). You might think that he was there because he'd broken the law. But Paul sees it as God's plan for him. He writes in 1:16b, ***I am put here for the defense of the gospel.*** And so we don't find Paul complaining about life in prison.

Yet I'm sure that Paul wasn't excited about prison life. Even so, he knows that whatever trials he endures they're all for the cause of Christ. He writes in 4:12a, ***I know what it is to be in need and I know what it is to have plenty. I have learned the secret of being content in any and every situation.*** Then, in 4:13 he writes,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Paul knew that the Roman guards needed Christ. So too the Philippians needed Christ at the centre of their lives. Christ was to be the basis of their unity.

With problems of unity in the Philippian church, the church needed encouragement. And so Paul doesn't focus on his immediate problems. His focus is the Lord Jesus. Note 1:21, ***For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Sure, he wants to live. But, live or die, he will face his problems with Christ as his Lord and Saviour.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습니까? 그는 옥살이 할 계획을 세운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는 그가 곧 빌립보를 방문하리라고 확신했었습니다 (2:24). 여러분은 아마 그가 법을 어겼기에 감옥에 있었다고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그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1:16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여기에 놓였나니”.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감옥에 있던 시간을 불평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바울이 감옥 생활을 즐기지는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그가 견디는 어떤 고난도 모두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4: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하게도 되고 풍부에 처할줄도 알아 모든 상황에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썼습니다. 그런 다음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도관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도 역시 그들 삶 중심에 예수가 필요했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의 연합에 기반이 되실 분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연합의 문제에 있어서 그 교회는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즉각적으로 그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었습니다. 1:21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에 주목하십시오. 틀림없이 그는 살기를 원했지만 그가 살던 죽던 그의 주인되시고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의 문제를 직면할 것입니다.

Have you ever thought that the way you face problems encourages other Christians? Look at 1:12-14, ***Now I want you to know, brothers and sisters, that what has happened to me has actually served to advance the gospel. As a result, it has become clear throughout the whole palace guard and to everyone else that I am in chains for Christ. And because of my chains, most of the brothers and sisters have become confident in the Lord and dare all the more to proclaim the gospel without fear.***

Here he is in prison, probably chained to a guard, yet enduring his suffering. Note his words in verse 12, ***what has happened has really served to advance the gospel.*** All of the palace guards know that he's a Christian. Furthermore, the Christians who care for his needs are encouraged to ***speak the word of God*** (1:14).

Do you know that people are watching your every move? They watch to see how you cope. They want to know, ‘Does your faith in Christ sustain you through the good times as well as the bad?’

여러분은 이제껏 여러분이 문제를 직면하는 방식이 다른 크리스천들에게 용기를 준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1:12-14절을 살펴봅시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하므로 겉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그는 감옥에 있을때 아마도 사슬에 묶인 채 고통을 견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 절에 있는 그의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다”. 모든 그 건물 호위병들은 그가 크리스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필요를 돌보던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1:14)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주시합니다. 그들은 “예수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졸을때 뿐만 아니라 어려울때도 여러분을 지켜내는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We have a faith worth sharing. For, we have the Saviour, Jesus Christ. But it's not faith that saves us. Rather, it's the finished, work of Christ on the cross. Christ bore our sins. It's Christ who saves. Faith is necessary for our salvation, but it's not the cause of it. Our faith centres on Christ crucified, dead and buried, and raised from the dead. Christ took our place on the cross, suffered and died for us, so that by grace through faith we rise to new life in Him.

How is it with you this morning? Do you have that faith in Christ? Do you even know how much you need Christ in your life? We call Him Saviour because He saves us from our sin. God, in His great mercy has made it possible for us to know Him. Faith assures us that in union with Christ we're right with God. So Paul isn't struggling to believe that God is at work. He's sustained by Christ because he is ***in Christ***. Note the end of 1:13, ***I am in chains for Christ.*** And it is Christ whom he must preach.

우리는 나눌만한 가치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다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원인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우리 자리에 대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고, 그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 예수안에 새 생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떠합니까? 예수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까? 우리는 그가 우리를 우리의 죄들로 부터 구원하였기 때문에 구세주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의 엄청난 자비로 우리가 그를 알도록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고 확신할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믿는데 전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가 예수 안에 있기에, 예수로 인해 견딥니다. 1:13절 끝부분을 주목합시다, “내가 예수로 인하여 매임 바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Paul wrote to the Romans (8:28),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And what was God’s purpose for Paul at this time? It was for him to be in prison, *in chains for Christ.* Here he is, exercising his faith, preaching the gospel and writing letters of encouragement. There is no self-pity in Paul.

Like Paul, you and I are called to exercise our faith in Christ. James writes in his letter (2:26b), *faith without deeds is dead.* But you ask, ‘How can I do that? I’m not Paul. I’m no great evangelist!’ Maybe not, but we can encourage others in their walk with the Lord. First, by showing how our faith sustains us in times of trouble. Second, by speaking an encouraging word or lending a helping hand. Maybe you can write a letter of encouragement to someone whom you remember them in your prayers. Recently, when Ginny was sick, someone did that for me.

바울은 로마서에서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썼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목적은 무엇이였을까요? 그것은 그가 감옥에 있는것, 예수를 위하여 묶인바 된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복음을 전하며 용기를 주는 편지를 쓰면서 믿음을 연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자기 연민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여러분과 저도 예수 안에 믿음을 연습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야고보도 그의 편지에서 (2:26) 이렇게 썼습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것이니라”. 그렇다면 여러분께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바울이 아니잖아. 나는 위대한 전도자가 전혀 아닌데!”. 그렇다면 아마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어떻게 견디게 해주었는지 나눌수 있을 것이며, 두번째로는 힘을 주는 말이나 도움을 주는 손길을 제공함으로써 그렇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 속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누군가에게 격려의 편지를 쓸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지니가 아팠을때 누군가가 저를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Faith in Christ assures us that God is at work in our lives. God *works out everything in conformity with the purpose of his will* (Ephesians 1:11). There may be times when you have doubts. You might even question why God allows bad things to happen to you. Why September 11? Why don’t my plans work out my way? God’s word comforts us. Isaiah 55:8, 9, *For my thoughts are not your thoughts, neither are your ways my ways, declares the LORD. As the heavens are higher than the earth, so are my ways higher than your ways and my thoughts than your thoughts.*

Above all else, Paul was a witness to the Lord Jesus Christ and to the power of the Gospel. Thus, we have his words to the Romans, in 1:16,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for the salvation of everyone who believes.* . . Paul writes in 2 Corinthians 5:7,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If we could see the future and know what will happen, we wouldn’t be exercising faith. Exercising faith is to trust in the One who is faithful: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For, it is God in Christ who sustains us in our walk with Him.

예수안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케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역사하십니다”(에베소서1:11). 아마도 여러분은 의심이 들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나쁜 일들이 여러분께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는가 하고 질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 9-11테러사건이? 왜 내 계획에 뜻한대로 가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이사야 55:8, 9 “여호와와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모든것을 제쳐두고, 바울은 복음의 권세와 여호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16절의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고린도후서 5:7절에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라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미래를 볼수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수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실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실천이란 신실하신 그 분을 믿는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와 함께 하게된 믿음으로 우리를 버티게 하실 예수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In Asia, a Christian pastor was arrested for preaching the gospel. Convicted for his beliefs, he was strung up with a noose around his neck. He was forced to stand on the tips of his toes. Yet when he spoke to his guards, he told them about Christ: How God showed His love for us by sending His Son to die in our place upon the cross at Calvary. Yet the men constantly mocked their prisoner.

The pastor suffered terribly. But he wouldn't deny Christ. He continued to preach to the men. His whole body was racked with pain. Starved of food and drink, he wondered just how much longer he could survive. Several days passed. A storm was brewing overhead. The pastor knew that he could go on no longer. He let himself go. He put the weight of his body on to the noose around his neck. Suddenly, there was a brilliant flash of lightning. Thunder followed in an instant and the man fell to the ground. The rope had been cut by the lightning and he was saved.

Not everyone has such a miraculous testimony. God doesn't promise to save us from every difficult situation. Christians suffer. Many Christians die in terrible circumstances. But God does promise that He will be with us in the difficulties of life. Psalm 23:4,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Psalm 46:1,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n ever present help in trouble. Therefore we will not fear...*

동양에서 크리스천 목사가 복음을 전하다 체포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 때문에 죄수가 되어 목 주위에 밧줄을 감고 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발가락 끝에 서도록 강요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도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아들을 우리 자리를 대신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그의 예수님에 관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그 죄수를 조롱했습니다. 그 목사는 처참하게 고통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온몸은 고통으로 망가졌습니다. 음식과 물에 굶주려 그는 그가 얼마나 오래 살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폭풍이 머리 위로 몰려왔습니다. 그 목사는 더이상 버틸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포기했습니다. 그는 그의 몸의 무게를 그의 목을 둘러싼 밧줄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번쩍이는 번개가 쳤고 천둥이 순간 따라왔고 그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밧줄은 번개에 의해 끊어졌고 그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모든이에게 이런 기적적인 간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크리스천은 고통당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처참한 환경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3: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46: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라...”

‘Well,’ you say, ‘I’m not in prison. I’m not suffering the agonies of torture.’ That may be true, but God asks that we be prepared to share the Gospel at all times. That’s what Paul is saying in Philippians 1:12-18. Nothing should stop us from witnessing to Christ. Are you in prison? There is your mission field. Are you in hospital? There is your mission field. Or are you at work, or at home, or at school or at play? There is your mission field. If we are faithful, nothing can stop the proclamation, the preaching of the Gospel. That’s how Paul begins this passage. Note 1:12, *Now I want you to know, brothers, that what has happened to me has really served to advance the gospel.*

Paul then considers two areas that may hinder our plans to advance the cause of Christ. 1. Our circumstances. 2. Our motives. We shall see first that circumstances cannot stop the advance of the Gospel. Second, our motives in presenting the Gospel also cannot stop its advance. Our plans might be frustrated. God’s plans are not!

“글쎄요, 저는 감옥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고문의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여러분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복음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빌립보서 1:12-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있습니까? 그곳이 여러분의 미션 필드입니다. 여러분은 병원에 계십니까? 그곳이 여러분의 미션 필드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건 일터에 있건 학교에 있건 놀이터에 있건, 그곳이 여러분의 미션 필드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에 있다면 어떤 것도 복음의 전파와 주장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바울이 이 말씀을 시작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1:12절을 주목하십시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런다음, 예수 때문에 하는 우리의 일을 더 확장하기 위한 우리의 계획을 방해가 될지도 모를 두가지 영역을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상황, 두번째는 우리의 동기입니다. 우리는 우선 우리의 상황이 복음의 확장을 멈추게 할수 없다는 것을 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동기가 그 확장을 멈출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좌절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1. Consider your circumstances – 1:12-14.

A few years ago the Presbyterian Church was criticized over the leaflet, ‘Port Arthur Revisited.’ You might remember that time of tragedy. Martin Bryant killed many people at Port Arthur. One man told our church moderator (at that time) that it was a pity he hadn’t been shot on that day. Others ranted and raved about the pamphlet. But when asked what part bothered them, they said, ‘Oh I haven’t read it.’ They didn’t want to read it either, even when offered a copy. But, praise God, many members of other churches thanked him for our strong biblical stand.

Our moderator said, “When we enter the media arena we expose ourselves to the possibility of being misunderstood, victimised, and even crucified. We must hear the voice of Jesus say: **“If any man would follow Me, he must take up his cross daily.”** We must be prepared to ‘take our share of suffering as good soldiers of Jesus Christ.’ And when the dust has settled, we trust that we may say with Paul: ***I want you to know, brothers, that what has happened to me has really served to advance the Gospel.***” (Philippians 1:12)

In prison, Paul is chained to the guards. They would’ve heard the Gospel again and again. No doubt many of them came to know Jesus as their Lord and Saviour after hearing Paul’s testimony. See 1:13, ***As a result, it has become clear throughout the whole palace guard and to everyone else that I am in chains for Christ.***

Let’s note two truths about Paul the sufferer that encourage us when we go through the trials of life. **First**, Paul makes little of his suffering. He doesn’t turn inward, full of self pity. Yes, he speaks of his chains, but they are ***chains for Christ***. How often do we want to dwell upon our problems rather than on the strength that we draw from Christ? **Second**, Paul the sufferer was still witnessing for Christ. The chains tell us very little, but *his* talk was all of Christ.

몇년전에 장로교회는 “다시 찾아간 포트 아서”라는 전단으로 인해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그 비극의 시간을 기억하는지 모릅니다. 마틴 브라이언트는 타지마니아의 포트 아서 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어떤 남자가 교회의 의장 (그 당시의)에게 그가 그 당일날 총에 맞아 죽게 된것이 애석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팜플렛에 관해 몹시 꾸짖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어떤 면이 그들을 거슬리게 만드는지 물었을때, 그들은 “글쎄, 우리는 그것을 읽어보지 않았는데..”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았을때 읽어보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많은 다른 교회 멤버들은 그 남자에게 성경적 원칙하에 굳게 서 준것에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의장은 “우리가 대중매체의 영역에 들어가면 우리는 스스로를 오해사고, 비난받고, 심지어 십자가에 처형되는 가능성에 노출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든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그의 십자가를 지어야 하느니라”라고 하신 목소리를 들을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동이 끝나면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빌립보서1:12).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겪을때 우리를 격려해준 그 고난받은자, 바울에 관한 두가지 진실에 주목해 봅시다. **첫째**는 바울은 그의 고난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는 자기 연민에 빠져 속으로 움추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사슬을 말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사슬이었습니다. 얼마나 종종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대처능력 보다 우리의 문제에 안주하길 원합니까? **두번째로** 바울, 그 고난당한자는 여전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묶인 사슬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전달해주지 않지만 그의 말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의 증거입니다.

Two friends were talking together. The younger man and going through a severe testing-time. The older friend with loving wisdom said, “No moment will ever again be like this; *let there be something for Jesus in it.*”

It’s not ‘something for Jesus,’ if we dwell on our miseries. Nor is it if we let opportunities pass without a word about Christ. It’s not ‘something for Jesus’ if we think that any hand other than His has brought us to that place. It is ‘something for Jesus’ if we think and speak about Him and His glory. It is ‘something for Jesus’ if we trust in His all-sovereign will.

In verse 14, we see that *most of the brothers and sisters in the Lord have been encouraged to speak the word of God more courageously and fearless.* Even while facing opposition they were stirred up to be bolder and more effective in speaking the good news of the Lord Jesus. Did you notice what Paul said? He didn’t say that the leaders of the church were preaching. It was the ordinary church members who were testifying to Christ.

In all circumstances we can speak about Jesus. Paul writes in 2 Timothy 4:2, ***Preach the Word; be prepared in season and out of season.*** . . . The Gospel is not just for the good times of life. Truly, nothing can stop the spread of the Gospel. See how it’s spreading in Asia and Africa and South America. In fact it seems to spread better in times of trouble as people discover that only God can help them. Sometimes we need hardship in our lives to drive us to the Lord. Remember that as Christians we have God’s word to us. Romans 8:28,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So our circumstances do not stop the advance of the Gospel.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더 어린 사람은 혹독한 시험의 시기를 겪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친구가 사랑이 담긴 지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순간도 다시는 지금과 같진 않을 거야; 그 안에 예수님을 위한 뭔가가 있게 하게”. 우리가 비련에 쌓여 있다면 “예수님을 위한 뭔가”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그 기회를 예수님께 관한 이야기 없이 보내 버린다면 그것도 “예수님을 위한 뭔가”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예수님을 위한 뭔가”가 나올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생각한다면, 그 고난은 “예수님을 위한 뭔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뭔가”가 될 것입니다. 14절에서 우리는 “형제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안에서 신뢰하므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라고 읽습니다. 심지어 반대에 부딪힐때도 그들은 예수님께 관한 복음을 말하는 데 더욱 담대하고, 더욱 쓰임받을수 있게 열심을 다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알아차렸습니까? 그는 교회 리더들이 설교를 해야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는 교회의 평범한 멤버들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께 관해 이야기 하여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썼습니다. 복음을 인생의 좋은 시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어떤 것도 복음 전파를 막을수는 없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지를 보십시오. 사실 사람들이 곤경에 놓여있을때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도울수 있음을 발견하기에, 복음은 더 잘 전해지는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격정적으로 이끌어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2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 Consider our motives – 1:15-18

When the communists controlled Russia they ridiculed Christianity. The newspapers strongly criticised the Bible. And so they’d print Bible verses in the papers. God’s Word, not readily available in Russia at that time, was published for all to read and evaluate. Many people were converted and encouraged.

Was the Russian media mishandling the Word of God? Maybe, but I’m not sure that Paul would agree. Listen again to what he has to say about it in 1:15-18a. ***It is true that some preach Christ out of envy and rivalry, but others out of goodwill. The latter do so out of love, knowing that I am put here for the defense of the gospel. The former preach Christ out of selfish ambition, not sincerely, supposing that they can stir up trouble for me while I am in chains. But what does it matter? The important thing is that in every way, whether from false motives or true, Christ is preached. And because of this I rejoice. Yes, and I will continue to rejoice.***

Not everyone who speaks about Christ has a pure motive. Paul sees two groups. The **first preach Christ out of envy and rivalry... out of selfish ambition, not sincerely**. Their motives are selfish and false. The **second preach out of goodwill... in love**. Their motives are true, like Paul's, **for the defence of the gospel**. Even in troubled times they faithfully seek to proclaim the Word of God. Yet Paul doesn't criticise the first group's faithfulness to the Gospel. Nevertheless, they were double-minded. They showed that to be true by their desire to stir up trouble.

Is there a message here for us? Yes there is. We cannot compromise on the truth of God's Word and His saving grace to us. But if that gospel is faithfully proclaimed, if Jesus is preached as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John 14:6) then who are we to criticize. It is our place to discern the truth. Has the Gospel been preached?

Paul is concerned for unity in the church. In our day we have many different Christian denominations. But they serve a good purpose with their different expressions of worship. And we can fellowship with any who love the Lord and seek to do His will. On the other hand I am unashamedly Presbyterian, but that's another story.

공산주의자들이 러시아를 지배할때 그들은 크리스천들을 조롱했습니다. 신문은 강력히 성경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구절들을 신문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시 러시아에서 성경은 쉽게 접할수 없었기에, 모든 사람들이 읽고 평가할수 있도록 출판된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개종되었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러시아 대중매체가 성경을 잘못 다룬것일까요? 바울이 이에 동의할지 의심스럽습니다. 1:15-18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다시한번 들어봅시다, "어떤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수님에 관해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순수한 동기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두 그룹을 봅니다. 그 **첫번째 그룹**은 시기와 경쟁심에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신실하지 않게 예수를 전합니다. 그들의 동기는 이기적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두번째 그룹**은 선한의도에서 사랑으로 전합니다. 그들의 동기는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한"것처럼 진실합니다. 심지어 고난의 시간에도 그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첫번째 그룹의 복음에 대한 신실함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에 의해 진실하다고 보여졌습니다. 여기 이 메세지가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를 대충 타협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복음이 신실하게 전해진다면, 만약 예수님이 "길ियो 진리요 생명되심"(요한복음14:6)이 전해진다면 그다음 우리는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그것이 진리를 분별하는 우리의 몫입니다. 복음이 전해졌는가? 바울은 교회의 연합을 걱정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다른 크리스천 종파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들은 예배의 다양한 표현으로 선한 목적을 위해 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찾는 누구나 교제 할수 있습니다. 한편 저는 제가 장로교인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은 다른 이야기 입니다.

The two men who guarded our Asian pastor were terrified at what had happened. Their prisoner had been miraculously rescued. They begged the pastor to forgive them and then gave their lives to the Christ. What great rejoicing that must have caused among the local Christians.

Things didn't go according to plan for the Apostle Paul or for Kenneth Bae. Things don't always go our way either. And we wonder why God doesn't do what we ask of Him. The Apostle Paul's situation reminds us that God sovereignly places us where He wants us to be. All He asks of us is that we be faithful: Faithful in living out our faith to His glory, and faithful in sharing our love for the Lord Jesus, whatever our circumstances may be.

Our plans may not come to fruition. God's plans do. It was His plan for His Son, Jesus, to come to the earth He'd created. Philippians 2:8, **And being found in appearance as a man, he humbled himself by becoming obedient to death—even death on a cross!** And how does God's plan bear fruit in our lives? You and I are here today that we might hear God's good news. We're to come to Christ with sorrow for our rebellion against God. And we're to receive Jesus as our Lord and Saviour, trusting that He died in our place. And now, having been united to Christ by faith, our sins are forgiven; we have peace with God and eternal life.

동양인 목사를 지키던 두 남자가 일어난 어떤 일을 보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들의 죄수들이 기적적으로 구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목사에게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했고 그런다음 예수님께 그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 지역의 크리스천들에 가운데 이 일어났던 일은 틀림없이 굉장히 기뻐할만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케네스 배에게 그들이 계획한 대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일들은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께 구한대로 해주지 않으신지 궁금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이 권능으로 그가 원하는 곳에 우리를 있게 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가 우리에게 원하는 전부는 우리가 믿음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 그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며 사는 믿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믿음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달성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됩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이 그가 창조한 세상에 오신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8절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속에 열매 맺게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 이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거역의 슬픔과 함께 예수님께 인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대신한 것을 믿으며,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이자 여호와 하나님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의 죄들이 용서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과 영생을 받았습니다.

Sometimes we're jealous of the position that we have in the church. And so we think that no one can do a particular task as well as we can. Or perhaps we envy the role that some other person has. And we wonder why we've been overlooked for a position of responsibility. For, we might think we can handle it better than the person now in that role. But if we're not careful we can end up trying to sabotage another believer.

Maybe we're bitter because everyone else is happy, blessed and doing well. If only you knew! We all have our problems. Sometimes life is extremely hard. And we all suffer from jealousy and envy from time to time.

Maybe our motives in speaking about Christ are not always pure. But, whatever the case, Paul concludes this section of his letter rejoicing that Christ is preached. 1:18b, ***The important thing is that in every way, whether from false motives or true, Christ is preached. And because of this I rejoice. Yes, and I will continue to rejoice.***

We also rejoice when we hear the name of Jesus lifted up on high. We rejoice, for nothing can stop the advance of the Gospel. Neither adversity (the difficulties we might face) nor the cause which motivates the Bible preacher/ teacher can prevent the spread of the Gospel.

We are here, where God has placed us. We each have unique gifts and abilities that God can use for His glory. We do not serve God so that He will love us. God has shown His love for us in sending Jesus, His Son. And so we serve God by loving Him and sharing His gospel with our words and deeds. Amen.

가끔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시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누구도 자기만큼 잘 할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왜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지목되지 않았는지 궁금해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역할을 하는 사람보다 더 잘할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믿는자를 파괴시키려고 노력하는 결과를 낳게 될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축복받았고, 잘 하고 있기때문에 꼬인 마음이 들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알수만 된다면! 우리 모두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삶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때때로 질투나 부러움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전하는 동기가 언제나 순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바울은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을 기뻐하며 그의 편지의 이 부분을 마무리 짓습니다. 1:18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재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이름이 높이 들어 올려졌을때 기뻐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복음의 전파를 막을수 없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역경 (우리가 접하게 될 어려움들)도 성경 설교자나 선생님에게 동기부여하는 어떤 이유라도 복음의 전파를 막을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자리에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수 있는 우리만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사랑하도록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아멘